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폭 강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광주시 교통사고줄이기 협업회의 불법 주정차·안전모 등 과제 추진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대책도 마련

광주시가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교통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 자문기구

로, 매달 사·자치구·교육청 및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연수원 등 행정기관과 교통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와 시민 보행공간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등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사·자치구 자동차 견인관련 조례 개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안전모 비치 의무화 조치 ▲전동킥보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대책 마련 등 5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광주에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8개사(5814대)가 활동중이며, 지난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적

발 건수는 2314건(무면허, 안전모미착용, 음주 등)이다.

협의회는 또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됨에 따른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의는 일단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단속 유예기간 운영 ▲주정차 허용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대한 시인성 강화 조치 ▲대 시민 홍보대책 마련 등 세부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이라는 대표 구호를 지정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 상반기 교통사고 121명 구조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대원들이 지난 27일부터 3일간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교통사고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하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올 상반기에만 739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121명을 구조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오월항쟁 발자취 느낀다

5·18기록관 현장답사 프로그램 9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 5·18 사적지를 직접 탐방하는 5·18민주화운동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9월1일부터 11월30

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사적지를 둘러보고 오월 항쟁의 발자취를 느끼며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등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일정은 A코스(1시간)와 B코스(2시간)로 나눠 신청자의 시간 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한다.

A코스는 5·18기록관-금남로-전일빌딩-옛 전남도청-상무관 옛터 구간이고, B코스는 5·18기록관-고흥순 변호사 자택-광주MBC 옛터-녹두서점 옛터-광주YMCA 옛터-옛 전남도청-전일빌딩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9월1일부터 5·18기록관에 방문하거나 전화(062-613-8209)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의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AI 파트너십 데이...27개 기업·기관 참여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동구 금남로 광주시청에서 '인공지능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한 뒤 상호 협력력을 다짐하고 있다. 인공지능 파트너십 데이는 광주시가 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

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창업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 기업 10개사와 인공지능 투자펀드 운영사 ㈜디앤인베스트먼트 등 총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AI 융합 프로젝트 교육 참여 기업·교육생 모집

광주시 다음달 23일까지

광주시는 "지역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융합 프로젝트 교육' 참여 기업과 교육생 9월 23일까지 모집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교육은 인공지능과 지역 특화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콘텐츠 등의 분야에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프로젝트형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고도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은 프로젝트 교육 수행 기업과 수강 교육생으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광주시는 수행기업은 광주 소재 인공지능 분야 기업 7개사 내외를, 교육생은 인공지능 분야 직무를 희망하는 구직자 30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3개월이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내 멘토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와 외부강사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생의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추가로 교육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원해 교육 과정에서 직무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 신청은 9월23일 오후 5시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과장은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교육 사업은 탁상에 머물러 있는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업과 교육생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교육 사업"이라며 "관심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빛고을 귀농·귀촌교육 하반기 교육생 모집

시 농기센터, 40명 영농교육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 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 빛고을 귀농·귀촌교육(하반기) 과정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귀농·귀촌 예정자이며, 30일부터 9월1일까지 4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진행되며, 귀농·귀촌 준비에 필요한 기초(소양)교육, 영농기술교육, 농업 유관기

관 이해 및 선도농업인이 들려주는 실전 영농이야기 등 내용으로 총 14회(60시간)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안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와 농업·농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영농 기초역량 및 실천의지 배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